

총회에 다녀와서

梁 元 永

어느날의 일기

1979년 ○월 ○일

모처럼 모이는 정기 총회의 날이다. 우리 협회의 정기 총회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참석 하게 된다.

서울시 지부 회원의 1/3이상의 인원이 모여 입추의 여지가 없다. 선배님들, 후배들, 그리고 스승님들, 반갑고 다정한 동료들이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계획하고 창작한다고 생각 하니 한결 우러러 보이고 대견스럽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가. 참으로 국가 재건에 공헌한 인물들이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인재들이다.

우리나라 건설의 역군들이요, 창조자들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혹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을 다녀가며 물라보게 발전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선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일까. 물론 맑은 하늘, 아름다운 산천, 잘 다듬어 지고 있는 도로들도 한 몫 하겠지만, 물라보게 발전하는 도시형성, 새로운 건축물들이 크게 작용 하지 않나 생각된다. 6.25사변으로 폐허화 된 도시들을 불과 20여성상에 오늘과 같은 도시로 건설한 공과는 그 질적인 문제에 앞서 결코 과소 평가 할 수 없는 공로이다.

건축 공학의 미 개발상태인 우리나라 실정으로, 국가 경제가 전무하고 구호물자와 구호양곡으로 연명하던 그 시절에 어찌 건축물의 질을 따질 것인가. 우선 풍우를 피할 수 있는 부록조 국민 주택이라도 감지 덕지 하였던 것이다.

이제 협회 창설 열네돌을 맞아 그 나이 아직 어리어 성숙한 멋이 없고 갈팡 질팡 하고 있지만 조만간 아름다운 몸매와 지성을 갖출 것이다.

국민 의뢰에 이어 과년도 결산보고와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이 통과 되었다. 임원 개선이 있었다, 몇 몇 회원이 너무 빈번한 발언으로 마치 전체 회의가 몇분들의 주도아래 유도 되는 듯한 감이 있었으나 엔지니어는 정치 학도나 법학도 같이 달변일 수 없고 또 회의진행에 숙달되어 있지도 않음을 생각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루한 감이 팽배해 질 무렵 복지회 총회가 속개 되었다. 어쩐 일인지 과년도 결산보고와 새해 예산안이 일사 천리로 통과 되었다. 회원들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여 적당히 넘기고 있는 듯 하다. 참으로 순박하고 착한 회원들이라 생각 되었다. 회의를 주관하는 임원 진이나 회원들이나 한결 같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몇 역원의 예산안과 결산안이 하등 이의가 없이 통과 된 것이다.

어느 점잖은 임팀의 정기 총회와 비교할 것인가. 고탐과 옥설, 먹살과 주먹다짐... 그것은 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자량은 될 수 없다.

아직 협회가 14살 밖에 안된 국민학교 5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는 건축 창작 풍토 개선과 부당히 침해 당하고 있는 권익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 금년에도 서울 시내 800여 회원중 과반수 회원이 변명 한번 해 보지 못하고 영업정지 혹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감리 문제로 전체 회원이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다. 설계비 덩핑 문제로 회원들간의 불화가 만연되고 있다. 용역 쟁탈전으로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 받고 있다. 설계 심의 제도로 인하여 막대한 경비와 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1인당 설계 건수는 외국에 비하여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데 설계사무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발언하는 회원이 없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직 자립하지 못한 소년의 입장이 아닐까.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고자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빨리 우리의 협회가 성인으로서의 발돋움을 하여야겠다. 협회 설립 목적인 "회원들의 권익 문제"를 위하여 과감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어야 겠다.

(梁元永建築研究所)